

서산대사 祭享 재연... 국가 제향 복원 시급

〈제향·나라에서 지내는 제사〉

일제강점기 폐지 해남 대흥사서 지난해부터 복원

임란 당시 승병 총궐기문 '서산대사 격문' 첫 공개

서산대사 휴정 스님(1520~1604)을 기리는 제향(祭享)이 2년째 재연됐다.

지역에서는 해남 대흥사 주관으로 재현하고 있는 서산 대제를 이제 국가 제향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 제22교구 본사인 해남 대흥사는 29일 경내에서 '탄신 제493주년 호국 대성사 서산 대제'를 봉행했다.

종례 제례보존회 '워한국의 장' 주관으로 정조 13년의 제향을 표충사 향례홀기를 근거로 50분간 재연했다.

박철환 해남군수가 초한관을 맡았다. 축문에는 서산대사가 대한민국을 보살피 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통일외교의 염원을 담았다.

서산 대제는 선조 때 시작돼 정조

임금 이후 해남 대흥사 표충사와 묘향산 보현사 수충사에서 제향(나라에서 지내는 제사)으로 매년 봄·가을 치러지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에 의해 폐지됐다.

대흥사는 지난해 제향을 복원했다. 대흥사 석운 총무스님은 "민족의 전통 관행으로 내려온 행사가 복원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나라의 큰 수치이자 나라에서 제정한 본래 표충(表忠) 정신을 되찾지 못한 것"이라며 "국가 제향으로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승병 총궐기문인 '서산대사 격문'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1592년 서산대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격문은 미국 컬럼비아대 중



서산대사 휴정 스님(1520~1604)을 기리는 제향(祭享)이 2년째 재연됐다. 조계종 제22교구 본사인 해남 대흥사가 29일 경내에서 '탄신 제493주년 호국 대성사 서산 대제'를 봉행하고 있다.

교철학 박사학위 논문에 실린 것으로 대흥사 측에서는 현재 원문을 찾고 있다.

한편 서산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승군총사령관에 임명돼 의승군을 이끌고 왜군과 맞서 싸웠으며, 현재 의발

과 유품이 해남 대흥사에 보관돼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어려운 이웃 보듬은 기업의 사랑나눔

여수 삼남석화 '장애인 한마당 축제' 성료

여수국가산단내 삼남석유화학이 어려워진 기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한마당 축제를 변함없이 개최해 지역사회의 미답이 되고 있다.

삼남석유화학 여수공장은 최근 여수시 학동 흥국체육관에서 '제9회 장애인 한마당 대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수시와 쌍봉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고 삼남석유화학 봉사단이 주최했으며, 지역 장애인총연합회와 여수시 장애인시설단체연합회의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레크레이션과 장기자랑 등 다

양한 프로그램으로 참석자들의 흥을 돋웠고, 장애우와 봉사자 간 배려와 화합을 통한 소통의 장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쌍봉종합사회복지관 배운규 관장은 "소의가정을 위한 밑반찬 배달, 역사체험행사, 실버카 전달, 연탄배달 등 삼남석유의 꾸준한 지역 사랑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수현 공장장은 "올해는 특히 기업경영의 어려움이 컸지만 지역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축제를 개최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청희기자 chkim@

영광원전, '한빛원전'이라 불러주세요

내달 초 한수원 이사회사 명칭 변경안 결정할 듯

영광원전의 명칭이 한국의 빛을 뜻하는 '한빛원전'으로 바뀐다.

29일 영광군 등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5월 초 이사회를 갖고 영광원전의 명칭 변경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변경안은 공모를 통해 접수된 안중 다수를 차지한 한국의 빛을 의미하는 '한빛원전'이 최종안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군은 한수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영광원전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했다. 10일간 진행된 공모에서는

177명이 총 187건의 안을 제안했다.

제안된 안 중에는 영광원전의 소재지인 행정명칭을 딴 계마원전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전이 건설되면서 사라진 계동마을에서 명칭을 차용한 계동원전이나 서해원전, 천년원전, 우리원전 등도 다수 접수됐다.

영광군은 원전 명칭에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어 지역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특산물 판매가 감소하는 등 경제적 악영향이 크며 수년전부터 명칭 변경을 요구해 왔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새 얼굴

"사회적 약자 괴롭히는 범죄 엄단"

양 회 기 곡성경찰서장



"4대 척결과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범죄 등에 강력히 대처해 주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경찰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최근 제69대 곡성경찰서장에 취임한 양희기(60) 총경은 추진력과 판단력이 뛰어나면서도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운 평을 받고 있다.

양 서장은 취임사에서 "성품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부정 불량식품을 뿌리 뽑아 주민이 불안

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서장은 전북 임실출신으로 원광대 경찰행정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경찰 간부후보 33기로 입문한 뒤 암주서장, 부안서장, 장성서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미자씨와 2남을 두고 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IT점목 최첨단 돼지농장 선보인다

전남도, 5억여원 투입 친환경 동물복지형 축사 건립

1일 사료량 체크·온도조절 등 축사관리 시스템 도입



5월의 남도 전통술

고흥 '금세기막걸리'

전남도는 5월의 남도 전통술로 고흥 ㈜족삼F&C의 '금세기막걸리(사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로부터 막걸리는 농사일을 시작하는 5월부터 농부의 고단함을 풀어주고 갈갈한 목을 축여 주는 등 삶의 애환을 달래주던 전통술이다.

'금세기막걸리'는 국내산 쌀 100%를 사용해 쌀막걸리 특유의 깔끔함과 청량감이 살아있는 생막걸리다.

지난해 남도전통술 품평회에서 생막걸리 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위생적인 제조환경, 국내산 쌀 사용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술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장필수기자 bungy@

전남도가 양돈(養豚) 분야에 정보통신(IT) 기술을 융합한 자연 친화적 동물복지형 농장을 구축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사업은 올해 농축산 IT융합 모델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프로젝트로 국비와 자부담 등 5억3000만원이 투

입될 예정이다.

전남축산위생사업소에 구축될 이 동물복지형 농장은 먹이주기부터 축사 환경 관리까지 IT기술을 접목했다.

돼지 귀에 부착된 칩은 해당 동물에 필요한 1일 사료량을 정확히 체크,

적정량의 사료를 먹도록 통제한다.

돼지가 먹이통 앞에 서면 사료를 먹었는지 여부를 구분해 먹이통 문이 열리도록 하는 방식이다. 축산농민이 돼지에게 직접 먹이를 주는 것은 추위 속의 모습일 뉘듯하다.

출하할 때도 적정 무게에 미달한 돼지는 자동으로 축사에 잔류하도록 돼지 무게를 자동으로 조절하도록 했다.

사육공간도 일반 농장보다 배 가까이

이 넓은 3.3㎡당 4마리 기준으로 동물복지형 농장으로 운영된다. 이 IT 융합 농장은 일반농장에 비해 마리당 2만5000원, 9%가량 생산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애초 구례의 한 축산농가에 시범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축산위생사업소에 올 연말까지 시범 설치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물을 주거나 온도, 온도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등 IT기술이 융합된 시설하우스는 있지만 축산분야는 처음이다"며 "이 IT 축사는 전국단위 양돈농가의 전문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여수 아시아수산학회 오늘 개막

44개국 1300여명 참가 500여편 학술발표

개막식과 환영만찬이 열린다.

18과제 500여 편의 연구 결과 발표와 수산업 발전 방안을 활발하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아시아수산학회에선 수산 양식·가공,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수산에

측, 환경과 질병 등 14과제 400여 편의 학술발표와 수산교육, 수산과 여성에 대한 특별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가두리 국제심포지엄에선 미래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각국의 가두리양식 실태 및 발전방안

과 차세대 재해 대응 위해 양식기술 개발 등 4개 과제 100여 편의 학술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학회장에는 수산분야 기자재, 사료, 수산가공품을 비롯해 완도해조류박람회, 국제전복심포지엄 등 홍보부스도 설치된다.

특히 바다 속 생태계 복원에 대한 법·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1회 바다식물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도내 해양생물과 해중립 조성, 갯벌 등 80여 점의 바다 사진이 전시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61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since 1952 **회갑의 해**

NAVER **담양 대나무 축제**

the 15th Damyang Bamboo Festival

제15회 담양 대나무 축제

천년의 숨결, 푸른대숲 이야기

2013. 5.3 | Fri - 5.8 | Wed 6일간
죽녹원 죽향문화체험마을, 관방제림 일원

주최·주관 담양군(사)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